우암학원 창학75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全南日報

제10143호 2024년 12월 18일 수요일 음력 11월 18일

somic
서울디엠씨
아파트·타운하우스 개발 사업

"실종된 '연말 특수' 살아나길"… 소상공인 기대감

힘 내 세 요 전남일보 소상공인 살리기 캠페인

상인 88% 정국불안 탓 '매출감소'
연말 할인행사 손님 모시기 총력
행안부, 재정집행시 '선결제' 독려
"업주에 힘 주는 착한소비 증가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가운데 정국 불안으로 얼어붙은 소비심리가 되살아날지에 소상공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송년회 등 연말 모임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예약과 매출이 급감해 소상공인들이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17일 오전 찾은 광주 상무지구 먹자골목. 광주시청과 걸어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이곳에는 시청 공무원들이 모임 및 회식 장소로 이용하는 식당이 밀집해 있다. 시청뿐 아니라 인근에 은행 등 다양한 기관과 기업들도 자리 잡고 있어 연말이면 직장인들의 송년회 단체예약 문의도 많이 들어오는 편이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12월 초입에 발생한 내란 사태 이후 방문 고객 자체가 줄어들면서 매출이 30~40% 이상 급감했다.

한식집을 운영하는 최모(64)씨는 "가게가 시청 인근에 있어 공무원들이 단체 식사를 하러 많이 오는데, 비상계엄 사태 이후 예약이 크게 감소했다. 매출 역시 작년과 비교하면 30%가량 줄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상인 배모(60)씨는 "예약 5건 중 2건은 취소되는 등 내란 사태에 따른 피해가 심각했다.

예약을 취소한 직장인들은 모두 '정국 불안'을 이유로 들었다"고 말했다.

실제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개인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전국 소상공인 16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8.4%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50% 이상 줄었다'고 답한 소상공인이 36%로 가장 많았으며, 30~50% 감소(25.5%), 10~30% 감소(21.7%), 10% 미만 감소(5.2%) 등이 뒤를 이었다.

이런 가운데 탄핵안 가결 이후 급랭했던 소비심리가 일부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남은 연말이라도 특수를 누리고자 하는 상인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소주와 음료를 무료로 제공해 송년회 장소로 인기인 광산구의 한 식당은 "탄핵안 가결 이후 예약이 늘었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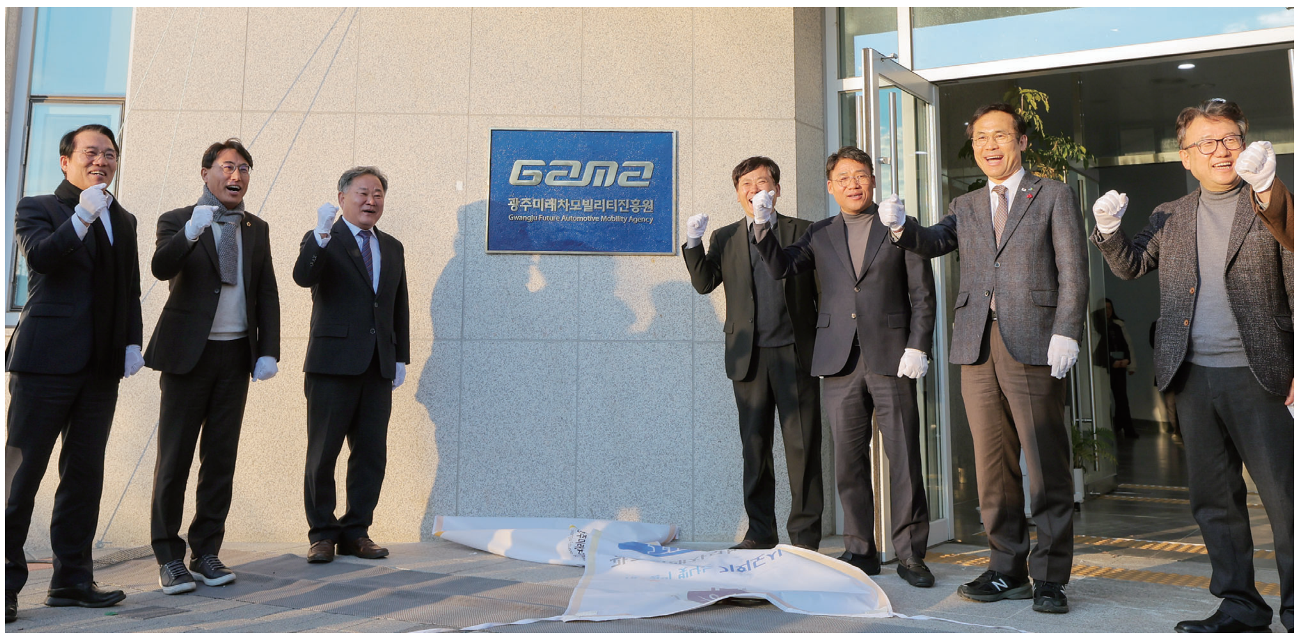
종업원 이모(49)씨는 "작년 연말에는 월·화요일에도 예약하지 않으면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았는데, 올해는 수·목요일에도 여유가 있으니 확실히 비교된다"면서도 "현재는 다시 예약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 앞으로는 사정이 더 나아지기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동구의 한 횟집 업주는 "평소 직원들과 자주 찾아오던 회사 대표가 '연말 가게 운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다'며 상당한 액수의 송년회 회식 비용을 선결제하고 갔다"며 "선결제가 이뤄지면 임대료, 식재료비, 직원 급여 등 필수운영비를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또 예약을 확정 짓는 것뿐만 아니라 노쇼도 예방할 수 있어 소상공인들에게는 한 줄기 빛이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상인들은 연말 맞이 특별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고객들의 발길을 붙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면에 계속

나다운 기자 dawoon.na@jnilbo.com



NEW CI 제막식 및 비전선포식 이상갑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박필순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김성진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원장, 김승남 광주도시공사 사장과 자동차산업 관련 산·학·연·관 관계자 등이 17일 광산구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에서 열린 'NEW CI 제막식 및 비전선포식'을 갖고 있다.

나건호 기자

공조본 "尹, 오늘 불출석시 요구 불응 간주"

체포·구속영장 등 강제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 측이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 밝힌 데 대해 공조수사본부(경찰·공수처·국방부)가 "출석 요구 불응으로 본다"고 17일 밝혔다.

공조본은"출석요구서를 수신하지 않았어도, 이를 인지했다고 볼 수 있다"며 "2차 출석요구는 18일 오전 10시 이후에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아직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한 시한이 되지 않은 만큼, 추가 출석요구는 이후에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법무법인 동진 대표변호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무실에서 '내일 공수처에 출석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내일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공조본이 보낸 윤 대통령 출석요구서에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공조본은 전날 윤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직접 전달하려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를 찾았으나 실패했다.

이에 등기우편을 통해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과 한남동 관저에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미배달되거나 수취거부로 반송됐다.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면 체포·구속영장 등 강제 수단을 동원할 가능성이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통령 경호처가 물리력으로 집행을 방해하면 어떡할 것이냐'는 질문에 "체포·구속영장에 대해선 공무상 비밀 등을 이유로 영장 집행을 방해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런 사태에 대비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성립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경호처에)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상·하수도 비굴착
• 국내 최초 상·하수도 공용 전체보수공법
『환경부신기술 제508호 T.S.L공법』
• 하수도 부분보수공법
『환경부신기술 제426호 O.P.L공법』
굴착교체의 문제점
하수관 보수 공사시 일반적으로 굴착 후 신관교체를 위주로 작업을 하고 있으며, 소음이나 교통체증 등 문제가 발생하며 안전사고 위험도 크다

비굴착 보수공법의 특징
• 굴착을 수반하는 하수관 보수공사에 비해 공사비 저렴
• 투입인원↓ 인건비 절감
• 하수관 내에 형성된 현장 경화관의 수명을 향후 50년으로 전망
• 단순한 시공 공정으로 안전사고 감소
• 타매설관과 접촉으로 인한 위험성 해소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글로벌 기업 (유)탑환경건설·(주)탑앤제이"
환경을 생각하고 미래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글로벌 리더로 거듭나겠습니다.
(유)탑환경건설 (주)탑앤제이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양일로 18번길 20
Tel 062)376-5599 Fax 062)376-0094